

이병헌·강동원·유아인, 유튜브로 연쇄이동

이병헌 '영국남자' 강동원 '문명특급'
유아인 '자이언트 팽TV'에 깜짝 등장
구독자 수백만~수십만명 막강한 파워
'보이는 라디오'도 결국에는 '유튜브'

이병헌은 '영국남자'를 만났다. 강동원은 '문명특급'에 올랐다. 유아인은 '팽수'와 함께 '댄스 좀비'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썼다. 뿐만 아니다. 콜린 퍼스, 라이언 레이놀즈, 테런 에저튼 등 해외 톱스타들도 함께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대중적 힘을 발휘하면서 최근 다양한 영화가 이를 홍보의 새롭고도 유력한 무대 삼아 배우들을 앞세우고 있다. 인기 유튜브 채널의 핵심 이용자이자 영화의 주 관객인 젊은층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이다.

●국내 유튜브 채널에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영화계가 주목하는 채널은 '문명특급'과 '영국남자', '자이언트 팽TV' 등이다.

영국인 조슈아 대릴 캐릿과 올리버 존 캔달의 '영국남자'는 올해 '납산의 부장들'의 이병헌 등 한국영화는 물론 할리우드 대작의 주연들과도 인터뷰했다. 한국과 영국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에는 '킹스맨' 콜린 퍼



이병헌

강동원

유아인

스, '어벤져스' 시리즈의 베네딕트 컴버배치, '데드풀' 라이언 레이놀즈,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의 아놀드 슈워제네거 등 스타들이 출연했다. '재재'라는 활동명의 유튜브 이은재 씨의 '문명특급'도 '반도'의 강동원을 등장시켰다. '소리꾼' 김동완·조정래 감독, '#살아있다'의 유아인·박신혜 등은 '자이언트 팽수TV'로 각 영화의 콘셉트에 걸맞은 내용을 담아내 수십만 조회수를 넘겼다.

모두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에 기댄 힘이다. 7월 말 현재 '영국남자'는 390만명, 화제의 캐릭터 '팽수'의 '자이언트 팽TV'는 211만명, '문명특급'은 75만명의 구독자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운영자인 유튜브도 유력한 대중적 스타로 부상했다.

●'보이는 라디오'의 힘…결국 유튜브다

TV나 라디오 등 기존 매체의 힘이 크게 약화한 건 아니다.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이 늘어난 대신 토크쇼와 연예정보 프로그램이 사라지면서 영화 홍보를 위한 배우들의 TV 무대가 적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영화전문 프로그램이 방송 중이다. 라디오도 배우들이 주연작을 알리는 데 유효하다. 특히 자가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이 주 청취자인 MBC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와 '배철수의 음악캠프', SBS '김영철의 파워FM' 등 FM라디오 프로그램이 주 공략 무대다. DJ의 편안한 진행이 배우들과 어우러지며, 화제성도 높인다는 평가다.

다만 이 역시 '보이는 라디오'에 적지 않게 기댄다는 점에서 영화 정보에 관한 관객의 시선 변화를 엿보게 한다. 라디오 생방송 현장을 유튜브를 통해 내어 보이면, 이용자들은 댓글로 호응한다. 이는 온라인상 전파되고, 또 배우 이름과 영화 제목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는 등 가장 빠른 홍보 효과가 나타난다.

영화 홍보마케팅사 엔드크레딧의 박혜영 실장은 "‘보이는 라디오’는 특히 젊은 관객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매우 크다"면서 "유튜브가 그만큼 새로운 매체로서 급부상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오뚜기 3세’ 뮤지컬배우 함연지 전속계약



함연지

오뚜기 함영준 회장의 장녀이자 뮤지컬배우인 함연지가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3일 "그 동안 유튜브 채널 파트너로 함께 협업해온 함연지와 전속 매니지먼트로 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유튜브 활동을 넘어 방송 및 연예 활동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연지는 "샌드박

스와 함께 과거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에도 과감히 도전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2014년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데뷔한 함연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아마테우스' 등의 무대에 올랐다. 작년 6월 연 유튜브 계정 '함연지'를 통해 2017년 6년 열에 끝에 결혼한 남편과의 일상, 아버지인 함 회장과와의 대화 등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3일 현재까지 2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유재석 "수재민 위해 써달라" 1억 쾌척

방송인 유재석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3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당한 이 시기에 유재석의 기부로 '선한 영향력'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유재석은 2006년 수재의연금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각종 재해·재난 때마다 기부해왔다.

김보라-조병규 공개연애 1년만에 결별

공개 연애 중이던 연기자 김보라와 조병규가 1년 만에 결별했다. 김보라의 소속사 모던테그로빌과 조병규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일 각각 "서로 바쁜 스케줄로 인해 헤어졌다"며 "좋은 선후배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JTBC '스카이캐슬'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은 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김보라는 웨이브에서 공개한 SF시리즈 'SF8' 중 '우주인 조안'에 출연했고, 조병규는 하반기에 방송할 예정인 OCN '경이로운 소문' 출연을 앞두고 있다.

TV 동물농장, '장애견 희화화' 사과

SBS "TV 동물농장"이 공식 유튜브 계정인 '애니멀봐' 영상 중 장애견을 희화화한 자막을 사용했던 비판에 사과했다. '애니멀봐' 채널은 3일 "지난 주말 업로드된 호돌이 예고의 마지막 부분이 본 방송 내용과 다르게 편집되고 영상에 맞지 않는 지나친 자막 표현으로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전주님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직접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뒷다리를 쓰지 못하는 반려견 호돌이의 예고편 영상에 '뒷다리 파업'이란 자막을 써 1일 공개해 장애견을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됐다.

송승헌·이동욱 등 배우들 언택트 팬미팅

연기자 송승헌·이동욱·유연석·이광수·김범이 통합 '언택트'(비대면) 팬미팅을 개최한다. 이들의 소속사인 킹콩 by 스타쉽은 3일 "배우 5인의 언택트 글로벌 팬미팅인 '틱톡 스테이지 위드 맨 앤 미션'을 14일 오후 8시 개최한다"며 "코로나19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국내외 팬들에 힘이 되고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는 5명의 배우가 각자 주어진 미션에 도전해 성공하면 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용으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통해 공개된다.

원톱 여배우 엄정화 “합이 잘맞는 액션은 통쾌”



스크린 복귀작 ‘오케이 마담’ 시사회

“우리 영화 보시면서 실컷 웃으시길”

“다시 신인이 된 기분이에요. 너무 떨려서 질문까지 자꾸 잊어요.”

배우 엄정화의 얼굴엔 긴장의 빛이 역력했다. 5년만의 스크린 복귀작인 '오케이 마담'(감독 이철하·제작 영화사 올)을 책임지는 타이틀롤의 무게, 코미디와 액션을 넘나드는 도전에 갖는 각오와 설렘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동시에 스코어 경쟁이 치열한 여름 시장에 유일한 여배우 원톱 주연 영화로 출사표를 던진 입장에서 갖는 부담도 고차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언론배급 시사회를 통해 작품을 공개한 엄정화는 이후 간담회에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라서 모두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일 텐데, 우리 영화를 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순간이나마 웃길 바란다”고 아이처럼 미소 지었다.

‘오케이 마담’은 막강 생활력의 파베이 맛집 사장 미영(엄정화)과 컴퓨터 수리기사인 남편(박성웅)이 경쟁에 당점대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난 비행기에서 맞닥뜨리는 테러 사건을 그린 코믹 액션영화다. 하와이 여행에 설레는 연상연하 ‘달살커플’ 부부가 엉겁결에 비행기 납치 사건을 해결하게 되고, 숨겨왔던 실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반전을 거듭하며 웃음을 유발한다.

영화는 코미디와 액션 두 장르의 미덕을 영리하게 활용한다. 밀폐된 항공기에서의 액션은 정교하게 짜였고, 기내 공간을 심층 활용한 설정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휴가철이지만 마음 놓고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현실’ 탓인지, 대리만족까지 안기면서 ‘8월 휴가영화’로서 역할을 다한다.

의외의 고난도 액션을 소화한 엄정화는 “연습할 때도 통과했지만 합이 잘 맞을 땐 더 큰 통쾌함을 느꼈다”며 “마음까지 시원해졌다”고 ‘액션 예찬’을 펼치기도 했다. 영화에는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등 개성 강한 캐릭터는 물론이고 김남길, 정만식, 전수경, 김혜은 등도 배우들도 매력 넘치는 인물을 맡아 ‘짧고 굵게’ 등장해 웃음을 선사한다. 하지만 영화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엄정화이다.

“그 어떤 영화보다 배우들과 나는 호흡이 좋아서 책임과 부담을 혼자 느끼지 않았다”는 엄정화는 “변화를 겪는 캐릭터이지만 약삭같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연기했다”고 돌아섰다.

엄정화는 여름 극장가에 여배우 원톱 주연으로 나서는 입장에 밝혔다. “여자 중심이기보다 여러 명의 멋진 캐릭터가 포진해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라고 설명하고 싶다”면서도 “여배우 원톱 영화가 드문 건 사실인 만큼,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 다양한 이야기의 작품이 제작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 영화 ‘오케이 마담’의 주연배우 엄정화가 3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언론시사회 무대에 올라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다.
주현희 기자 leth1147@donga.com



제8회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에도 “대중에 웃음을 주겠다”는 의지로 21일 개최를 결정했다. 사진은 개그맨 이종훈, 김재욱, 박성호, 김원호, 정범균(왼쪽부터)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모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leth1147@donga.com

“코로나19 정면돌파” 포맷 바꾼 ‘부코페’

21일부터 열흘간 축제 열어
2만여장 스마일 마스크 준비

“코미디는 계속 되어야 한다(Comedy must go on)” ‘아시아 최초 코미디페스티벌’을 표방한 부산국제코미디 페스티벌(BICF·부코페)이 오랜 고민 끝에 21일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개최 여부와 방식 등을 두고 고민했지만, “어려울수록 대중에게 웃음을 주어야 한다”며 개최를 결정했다.

2013년부터 부코페를 이끌어온 집행위원장인 개그맨 김준호와 조직위원회는 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모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21일부터 열흘간 부산에서 무관중 개막식을 시작으로 자동차극장 시스템 형태의 공연 등 다양하게 펼친다.

개그맨 김대희는 “보건복지부 인증 업체가 전 공연장의 방역을 진행하고, 공연장 내 3좌석 당 1인 배치를 통해 2m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객에게 배포하기 위해 앞면에 ‘스마일’ 마크가 크게 새겨진 2만여 장의 ‘스마일 마스크’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즉석에서 관객과 소통하기 힘든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공연을 구성하고 있다. 개그맨 박성호는 “코미디는 무대 위아래를 오가며 관객과 나누는 호흡이 중요한 장르이지만, 이번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모두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웅알스 최기섭 또한 “안전을 위해 팀 결성 11년 만에 공연 포맷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해운대구 수영 요트경기장을 자동차극장으로 바꿔 ‘코미디 드라이빙 씨어터’도 운영한다. 해당 무대에 서는 임우일은 “자동차 안에 있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개그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새로운 방식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직위원회는 개막식에 일반 관중 대신 대구시에 지원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선 부산시 의료진 일부를 초대하기로 했다. 최근 22년 만에 종영한 KBS 2TV ‘개그콘서트’ 출연한 32기 공채 개그맨 전원으로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명백 공연팀장은 “신인 개그맨들이 설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미”라며 “이들이 개막식 무대에서 공연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